



슬슬 몸 풀어 볼까...임창용 1군 등판 임박 2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2016 타이거뱅크 KBO 리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에 앞서 KIA 임창용이 불펜 피칭을 하며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다. 임창용은 지난해 마카오에서 해외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돼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KBO로부터는 정규시즌 144경기의 절반인 72경기 출장정지를 당했다. 임창용은 징계가 풀리면 곧바로 1군에 올라올 예정이다. KIA는 오늘까지 71경기를 치렀다. 만약 30일 광주에서 열리는 LG전이 비로 인해 미뤄지지 않으면 7월 1일 고척 넥센전부터 엔트리에 오르게 된다. <KIA 타이거즈 제공>



‘출루 머신’ 김현수 장타력도 뽑낸다

30일만에 2호 홈런...4출루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가 30일 만에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한 경기 개인 최다 타점을 올렸다. 김현수는 29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팻코 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방문 경기에 8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1홈런) 2볼넷 3타점 2득점을 기록했다. 김현수는 3회초 첫 타석에서 잘 맞은 타구를 외야로 보냈지만, 샌디에이고 중견수 맬빈 엡튼 주니어의 호수비에 걸렸다. 하지만 2-1로 근소하게 앞선 5회초 무사 1루, 김현수는 샌디에이고 선발 에릭 존슨의 시속 140km 몸쪽 낮은 투심 패스트볼을 잡아당겼다. 왼쪽 담을 넘어가는 투런포였다. 5월 30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에서 박리고 입성 후 첫 홈런을 신고한 김현수는 30일 만에 홈런을 추가했다. 김현수는 6회초 1사 1, 2루에서 샌디에이고 우완 불펜 카를로스 바갈족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익 선상에 떨어지는 1타점 2루타를 만들었다. 김현수의 시즌 8번째 2루타다. 김현수는 5월 26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2루타 2개) 이후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두 개 이상 장타를 쳤다. 홈런과 2루타를 함께 기록한 것도 처음이다. 한 경기에서 2타점 이상을 올린 것도 처음으로 김현수는 7회와 9회 볼넷을 얻어 네 차례나 출루에 성공했다. 올 시즌 3번째 한 경기 4출루다. 이날 볼티모어는 3홈런 포함 17안타를 몰아치며 11-7로 승리해 6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현종이 형, 내 승 가져가”

KIA 심동섭 '운수 좋은 시즌'

KIA 타이거즈 심동섭의 '운수 좋은 시즌'이다. 심동섭의 역할은 불펜의 좌완 필승조다. 승리를 지키는 게 심동섭의 임무지만 이상하게 올 시즌에는 승리투수가 되고 있다. 지난 28일 LG와의 경기에서도 심동섭은 홀드가 아닌 승리를 기록했다. 이날 임시선발로 나선 심동섭은 3회 2사 2루의 위기를 처리하는 등 2.2이닝을 1피안타 1볼넷 2탈삼진 1실점으로 막았다. 이날 경기는 3회말 김주찬의 2타점 적시타를 시작으로 4회에는 나지완의 투런이 나오면서 11-2, KIA의 승리로 끝났다. 그리고 효율적인 피칭으로 초반 싸움을 이끈 심동섭에게는 승이 주어졌다. 시즌 5승째다. 7승을 기록한 지크와 핵타에 이어 팀 내 다승 3위, 전체 공동 17위다.

불펜 등판하며 벌써 5승... 팀내 다승 3위

“내 역할 충실하며 더 치고 올라 가겠다”

심동섭은 “그동안 나는 운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운이 따른다.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고 웃었다. 올 시즌 심동섭이 승리 조건을 채운 경기만 8번이다. 큰 틀에서 보면 선발진이 잘 돌아가지 못한 여파이기도 한 만큼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 기록이다. 심동섭은 “사실 내 자리에서는 홀드와 세부 스탯이 더 중요하다”며 “올 시즌 이파서 두 번 내려갔다 왔는데 많이 좌절하고 미안했다. (윤)석민이 형이나 (김)진우 형이 오면 팀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일단은 내 역할을 충실하게 소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 시즌 초반 모습은 기

대에 미치지 못했다. 성장세를 보여야 하는 올 시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게 본인도 답답하기도 하다. 심동섭은 “예전에는 초반에 좋다가 후반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올 시즌에는 초반부터 좋지 못해서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다”며 “지금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단 버티면서 밸런스를 잡아야 할 것 같다. 지금보다 더 치고 올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볼넷이다. 심동섭은 “쓸데없는 볼넷이 많다. 제구가 안 돼서 볼넷을 주고 이게 점수로 연결되고 있다”며 “승을 챙겨서 즐기는 하지

만 볼넷이 더 신경쓰인다. (양)현종이 형한테도 승 줄 테니까 내 볼넷도 가져가 달라고 했다(웃음). 시즌 시작하면서 볼넷 20개를 목표로 삼았는데 벌써 13개를 기록했다. 나중에 목표 수정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20개를 보면서 볼넷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A의 귀한 좌완 불펜. 가장 믿음직하고 경험 많은 이가 심동섭이지만 올 시즌은 아직 많은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심동섭을 중심으로 좌완들의 경쟁과 성장이 이뤄지는 게 KIA에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심동섭은 “아파서 내려가 있을 때 내가 나가야 할 자리에서 다른 좌완 투수들이 나와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긴장도 했다. 나도 경쟁을 해야 한다. 남은 시즌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대호·오승환 ML 신인 톱10

美 스포츠매체 선정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29일 한국과 일본 무대를 평정하고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34살의 루키' 이대호(시애틀 매리너스)와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을 '올 시즌 신인 중 상위 10명'의 9, 10번째로 호명했다. ESPN은 “시애틀이 이대호를 영입할 때 장타에 대한 의심은 없었다. 그러나 수비력과 적응, 타율에 대한 걱정은 했다. 그래서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다”며 “현재까지 이대호는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대호 덕에 시애틀은 지난해보다 더 전략적으로 라인업을 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대호는 28일까지 타율 0.282, 10홈런, 30타점으로 활약했다. 오승환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ESPN은 “오승환은 시속 148~150km 정도의 패스트볼을 던지는데 컷 패스트볼 혹은 싱크 패스트볼처럼 변화가 심하다. 시속 138km 고속 슬라이더와 견고한 스피리터까지 갖춰 몸쪽과 바깥쪽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승환은 디펜션(구중을 숨겨거나 공을 놓는 시점을 달리하는 동작)의 왕”이라고 오승환의 또 다른 장점도 제시했다. /연합뉴스

“최영필에 무거운 짐... 고맙고 미안하다”

덕아웃 T 특특

▲미트 보고 감이 왔어요=공보다 빠른 노수광이었다. 노수광은 1-0으로 앞서 1사 1·2루에서 김주찬의 2루타 때 2루 주자 김호영에 이어 홈까지 밟으면 3-0을 만들었다. 홈 점전 상황에서 아웃이 선언됐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노수광의 손이 베이스를 먼저 찍으면서 득점이 인정됐다. 노수광은 “김주찬 선배의 타구가 홈런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무조건 뛰었다. 그리고 홈에 와서 슬라이딩을 하는데 미트가 내려오는 게 보였다. 그 옆으로 손을 뻗으면 살 수 있겠다”고 생각

했다고 설명했다. 특유의 빠른 발을 과시한 노수광. KIA에서 손에 꼽는 또 한 명의 빠른 발 김호영은 “둘이 비슷할 것이다”고 두 사람의 주력을 평가했다. ▲고맙고 미안하고=이번에도 노장에 게 무거운 짐을 지어준 것 같아서 미안한 사령탑이다. 김기태 감독은 29일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전날 선발 역할을 해준 최영필에 대해 “40~50개를 던져줬는데,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부상과 부진으로 4·5선발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팀 상황에서 28일 선발로 나선 최영필은 2.2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11-2 승리의 발판을 놓아주었다. 최영필은 “선발이기보다는 팀이 연승 중인 만큼 분위기를 잡아주

는 역할을 하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표정관리가 안됐는데=올다 웃은 이흥규였다. 이흥규는 지난 28일 LG와의 경기에서 자신의 한 경기 최다 타점 기록을 새로 썼다. 세 번째 타석에서 투런포를 날렸던 이흥규는 8회 무사 만루 상황에서 연타석 홈런을 터트리며 6타점을 싹쓸이했다. 하지만 앞선 두 타석에서 삼진과 3루수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부담 많았던 이흥규였다. 이흥규는 “투 타석에서 못 쳐서 표정관리도 안 되고 마음이 좋지 못했다. 수비라도 어떻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팀에 보탬이 돼서 기쁘다”고 활짝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임창용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기부

나머지 연봉 2억은 내달 야구용품으로 전달

KIA 타이거즈 투수 임창용이 속죄의 뜻으로 연봉 3억원을 전액 기부했다. 임창용은 29일 챔피언스 필드 1층 인터뷰실에서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들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 임창용은 오는 7월12일에는 광주와 전남 지역 29개교에 2억원 상당의 야구 용품을 광주와 전남 야구협회를 통해 전달 예정이다. 임창용의 이번 기부는 올 초 KIA에 입단하며 연봉 전액(3억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임창용은 “저의 과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담아 어려운 이웃들과 야구 꿈

나무들에게 연봉 전액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야구를 통해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창용은 이날 12번 유니폼을 입고 1군 선수단과 훈련을 했다. 임창용은 징계 가운데서도 7월1일 엔트리에 등록돼 고척초·중·고·대 29개교에 2억원 상당의 야구 용품을 광주와 전남 야구협회를 통해 전달 예정이다. 임창용의 이번 기부는 올 초 KIA에 입단하며 연봉 전액(3억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임창용은 “저의 과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담아 어려운 이웃들과 야구 꿈